

심상

# 손돌목 돈대의 슬픈 사연

글·사진 이상엽 사진가





강화 나들이를 하다 보면 손돌목이란 곳을 만난다. 염하를 두고 김포는 신안리, 강화는 광성보 사이가 손돌목이다. 이곳은 좁기도 하고 물길이 꺾여나가며 휘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세곡선이 한양의 마포로 들어오자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물길이 험해 술하게 침몰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손돌목 돈대가 염하를 바라보며 서 있다. 신미양요 때 수많은 조선의 군관들이 죽은 곳이다. 그곳에 올라 손돌목을 내려본다. 과연 물의 흐름이 세고 위태롭다.

이곳은 왜 손돌목이라 했을까? 이름 자체를 살펴보면 ‘손돌’의 ‘목’이란 뜻이다. 손돌은 사람 이름 같고, 목은 강이라는 통로의 잘록한 부분을 말한다. 일단 설화는 이렇다. 고려 고종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갔다. 이곳 물길을 아는 손돌이라는 뱃사람을 고용해 조타를 맡겼는데 이상하게 험한 곳으로만 가더란다. 그래서 왕이 의심해 손돌을 죽이기로 했다. 이에 손돌은 죽음을 피할 방도가 없음을 알고 표주박을 물에 띄우고 그 길을 따라 가라하고는 칼을 받았다. 정말 그 표주박을 따라가니 안전하게 강화도 육지에 도착했다. 왕이 뉘우치고 손돌을 장사지낸 후 사당을 지어주었다. 이런 설화다. 이 설화로 인해 음력 10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를 손돌바람이라 하고 선원들이 이 바람이 부는 때는 배를 띄우지 않더란다.

그런데 이 설화는 좀 이상하다. 개경에서 피신한 왕이 황해도를 따라 한강 하구에서 염하로 내려오면 지금의 강화읍에 가까운 갑곶이다. 손돌목이 있는 남쪽 끝까지 내려갈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 물길을 맡긴 자를 배 위에서 죽여 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겠는가? 역사가 많아 허술한 설화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와 문학가들이 의심을 했나 보다. 먼저 이곳의 오래된 지명이 뭔가를 살폈다. <고려사>의 이승휴전과 <용비어천가>에 착량(窄梁)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착량은 강이나 바다의 폭이 좁은 여울을 뜻한다. 그럼 손돌은 뭔가? 우리말로 손(술)은 좁다, 돌은 돈다는 뜻이다. 손돌은 좁고 휘돈다는 것이다. 손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착량의 우리말 지명이었던 것이다.

손돌목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지명이 아니라 먼저 지명이 있었고 이것으로 사람의 설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언제쯤일까? 이렇게 강화도에 피난 온 것은 고려 고종과 조선의 인조였다. 백성들 눈에는 자신과 왕국만을 보존하겠다고 비겁하게 피신하는 모습으로 비추었을 것이다. 게다가 의심이 많아 백성을 믿지 못한다. 그럼에도 설화는 묘책을 마련해주는 백성의 진심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시대 풍경이 손돌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끝내 거역하지 못했던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가엾다. 이런 나라가 다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



### 이상엽

다큐멘터리 사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사이며 한겨레신문, 시사인 등에서 칼럼을 쓴다. <변경의 역사> 등 여러 전시를 하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표정이 있다』, 『변경지도』 등 다수의 책을 썼다.